

# 앤젤리나 졸리 “브래드 피트가 아이들 양육비 외면했다”



앤젤리나 졸리(왼쪽)와 브래드 피트(오른쪽)의 싸움이 현재진행형이다. 둘은 이혼 소송에서 양육비 문제로 서로를 공개 비난했다.

7일 할리우드 연예매체 ‘피플’에 따르면 졸리 측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피트는 아이들을 지원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결별 이후 지금까지 의미 있는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앤젤리나 졸리가 브래드 피트와 이혼한 후 양육비의 50%를 지원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하지 않았다. 앤젤리나

졸리는 2년간 홀로 아이들을 책임졌다. 법이 아니라도 아빠라면 응당 했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브래드 피트 측은 “앤젤리나 졸리와 아이들에게 양육비로 130만 달러(약 14억) 이상을 줬다.”며 “앤젤리나 졸리가 살고 있는 집 역시 800만 달러를 보냈다. 이번에 양육비 소송 서류를 낸 건 언론 보도를 조작하기 위한 수작이다.”고 졸리 측을 비난했다.

졸리와 피트는 지난 2005년 영화 ‘미스터&미세스 스미스’를 함께 찍으며 가까워졌다. 피트는 제니퍼 애니스톤과 이혼하고 앤젤리나 졸리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뒤늦게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둘은 2016년 9월, 화해할 수 없는 차이를 이유로 결별을 선언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졸리에게 아빠 피트의 접근을 제한하면 아이들에게 해로운 것이라며 피트의 아이들 접근을 허락했지만 졸리는 피트가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며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 68살 리처드 기어 아빠 된다

리처드 기어가 아빠가 된다. 그의 나이는 68세이다.

8일 스페인 신문 ABC에 따르면 리처드 기어(왼쪽)의 세 번째 부인 알레한드라 실바(오른쪽)가 첫 아이를 임신했다. 리처드 기어와 알레한드라 실바는 지난 4월 스페인에서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으며 5월에는 뉴욕에 가족, 친구들을 초대해 성대한 결혼 피로연을 열고 결혼 소식을 알린 바 있다.

두 사람은 무려 33세 나이 차이를 뛰어넘고 2세를 가지게 됐다. 리처드 기어는 전 부인 캐리 로웰과의 사이에 18세 아들을 두고 있다. 실바 역시 2012년 결혼해 전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을 출산했지만 2015년 이혼했다.

한편 리처드 기어는 톱 모델 신디 크로포드와 지난 1991년 결혼했지만, 1995년 이혼했다. 두 번째 부인 캐리 로웰과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결혼 생활을



했다. 이후 실바와 3번째 결혼했다. 실바는 아버지가 레알 마드리드 풋볼 클럽의 부사장을 역임한 금수저로 알려졌다. 실바는 자신이 운영하는 이탈리아의 한 호텔을 관리하던 중 리처드 기어를 만났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공식석상에 참석하며 다정하게 스킨십을 나누는 등 애정을 과시한 바 있다.

# 디카프리오, 여친 앞에서 ‘익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왼쪽)가 23세 연하 여자친구 앞에서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1일 뉴욕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디카프리오의 최근 만남을 시작한 새 모델 여자친구인 카밀라 모로네(20·오른쪽)와 함께 프랑스의 한 해변에서 럭셔리한 요트 휴가를 즐겼다. 디카프리오의 부스스한 머리와 편안해 보이는 티셔츠를 걸쳤고, 여자친구인 모로네는 흰색 후드티에 화장기가 거의 없는 민낯으로 즐거운 때를 보냈다.

모로네는 디카프리오가 말을 꺼낼 때마다 재미있다는 표정과 웃음을 감추지 못했고, 디카프리오의 급기야 영화에서 보기 드문 열기적인 표정으로 여자친구를 더욱 즐겁게 했다.

뉴욕데일리뉴스는 “이 사진은 디카프리오의 최고의 얼굴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말부터 열애설에 휩싸인 디카프리오와 카밀라 모로네는 23살의 나이 차이로 화제를 모았다. 어느 때처럼 디카프리오의 열애설에 대해 반응하지 않은 채 데이트를 즐기고 있다.

카밀라 모로네는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미국에서 모델 겸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1224호 숫자퍼즐 정답

9	3	2	1	4	6	8	5	7
1	4	5	2	8	7	9	6	3
6	8	7	3	5	9	1	2	4
2	5	9	6	7	4	3	8	1
4	6	3	8	1	5	2	7	9
7	1	8	9	2	3	5	4	6
3	2	1	4	6	8	7	9	5
8	7	6	5	9	1	4	3	2
5	9	4	7	3	2	6	1	8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 청해(淸海) 사주명리학과 기존 이론의 차이점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예전에 어느 40대의 여성과 상담을 하면서 필자에게 먼저 묻는 말이 자기가 지금까지 여러 곳의 철학원을 많이 다녀보았는데 모두 실망스러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혹시 필자는 정확하게 자신의 운명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냐고 묻는다. 그 말을 듣고 필자가 건넨 이야기는 “내가 상담을 의뢰하신 분의 타고난 팔자(八字)나 운(運)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줄 수는 없지만 타고난 팔자의 특징들과 앞으로 다가올 운(運)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처세해야 하는지 설명해줄 수는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주고 그 여인의 팔자를 보면서 건넨 이야기는 “타고난 사주팔자가 평생 직업이 글과 학문을 바탕으로 전문직에서 성공할 사주가 되는데

아쉽게도 배우자 인연은 굴곡이 따르는 팔자가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얼마 전에 이혼했다는 것이다. 이어서 필자가 그 여인이 타고난 팔자의 특징들과 앞으로 다가오는 운(運)의 흐름에 따라 처세할 바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상담을 모두 마치고 나서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다른 곳보다 원장님이 풀이하시는 것이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감탄을 한다. 이어서 필자가 건넨 말은 “기존의 사주명리(四柱命理) 이론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오행론(五行論)이나 용신(用神)이나 격국(格局)을 따지는 이론하고 제가 구사하는 사주이론은 사주를 해석하는 관점에서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의

이론이 사주(四柱) 간지(干支) 글자에 드러난 갑(甲), 을(乙), 인(寅), 묘(卯)를 오행적으로 단순히 목(木)으로만 보고 평면적으로 단순하게 사주를 해석하는데 반해서 필자가 사주를 해석하는 관점은 입체적으로 갑(甲), 을(乙), 인(寅), 묘(卯)가 각각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고 사주를 해석하므로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사주를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만나게 되는 역학자도 모두 인연따라 만나게 되는 것이다.

-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 ★ 사주명리(四柱命理) 수강생 모집 ★

평생사주 총운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상호, 이름 작명	풍수지리 출장 감정	수맥 탐사 전문

예약 필수 714.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역학학술원